

# 가짜 농산물이 판친다

## 소비자 인식 전환돼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의식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위 「유기농법」으로 재배됐다는 농산물의 85%가 가짜인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농산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朴弼秀)이 「저공해표방농산물 생산·유통실태 조사」를 위해 경기도 남양주군등 전국 15개 시·군 소재 120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와 서울시내 주요백화점 및 슈퍼마켓 18개소의 농산물 생산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유기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118개 농가(조사대상 120개 농가중 유통란 생산 2개 농가 제외)에 대한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사용등의 농산물 생산실태를 보면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등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의미의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5.3%인 18개의 농가에 불과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대부분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조사대상중 대부분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유기농업으로 재배되었다는 농산물의 85%

가 가짜인 셈으로 드러났음은 물론 이같은 농산물을 대형 백화점이나 슈퍼마켓등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더욱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나 백화점등에서 유통중인 일부 농산물의 경우 특별한 재배조건에 대한 제시없이 「저공해 야채」 「무공해 자연식품」 「무공해 식품」 「유기농산물」 등의 허위과대 표시를 남용함으로써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은 마치 공해농산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케 하고 있다.

이와같은 농산물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위 「무공해농산물」의 생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를 판정하거나 평가할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 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것 같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280억원('90년도 기준)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간 10% 증가를 예상할때 '91년도는 약 30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평균 유통「마진」은 상추 84.2%, 썩갓 75.0%, 시금치 53.9% 등 평균 71.0% 것으로 밝혀져 안전성과 가격면에서 2중의 詐欺性을 내재하고 있다.

결국은 이같은 생산판매 행위가 농촌에서 묵묵히 땀흘려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우리 농산물애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도 막연한 추측과 생각에서 벗어나 무공해의 진정한 의미와 생산실태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유기”니 “자연”이니 “무공해”니 하는 말은 누구나 좋아하고 잘 쓰는 간단한 말이지만 첨단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다분히 말의 “魔術”에 지나지 않고 또 여기

대부분이 가짜  
임에도 평균 유통  
마진이 71%로 안  
전성과 가격면에서  
2중으로 소비자  
자를 우롱하고 있다.

## 時論

에 속아서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농약은 인공적인 생산물이므로 毒이며 반대로 자연에 있는것은 독이 아니므로 자연농법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것도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이다.

농약은 그 양이 많은 적든간에 유해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농약은 분명히 작물의 건강을 지탱하여 수량을 증대시키며 맛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개발한 약품이다.

그런데도 무농약이란 말이 상당히 선호되고 있는것은 결국 농약은 나쁜것이라는 관념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는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벌레먹은 채소가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이다.

병균과 해충 피해에 의한 독성이 알려진 것도 약간 있으나 알려져 있지 않은것이 더 많다. 농약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나 병균과 해충의 피해에 의한 독성은 '체크'하고 있지 않다.

농약을 뿌리지 않은 무농약채소에는 해충이나 해충의 알 또는 그 배설물이 몇십ppm 들어있다.

그런 채소를 먹었을 경우 위생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실제로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현대농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웃 日本의 농림수산성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쌀 35%, 밀 20%, 시설오이 94%, 노지오이 85%, 사과 90%, 무 35%의 감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제초작업을 실시한 구역과 실시하지 않은 구역을 대비하여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잡초에 의한 감수율은 쌀 36%, 밀 68%, 팥 27% 등으로 나타났다.

무공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유기니 자연이니 무공해니 따위는 다분히 말의 '마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의 농작물은 충분한 시비, 병충해 방제, 잡초방제등 인위적인 보호없이는 정상적인 생육과 수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확량에 관계없이, 소면적에 자급자족을 위한 유기농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나 또 국립보건원의 농약잔류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소위 무공해니 유기니 하는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서로 차이가 없는 모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현명해야 생산자나 유통업자의 속임수 상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살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하고 아울러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지 않는것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효과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는 것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다.